

우리 사이트의 소개는

Everything Can Be Scanned'
현대사회는 접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Data로 저장합니다. 모든 것을 읽어내는 '일상의 바코드화'는 AI의 등장과 함께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체류 시간, 반응 여부 등을 모두 기록합니다. 기록을 분석하고 추적하면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패턴을 통해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주는 편리함은 중독적입니다. 알고리즘은 개개인의 인식격차를 만들어 냅니다. GAPPY는 알고리즘 편향에서 벗어나 더 많은 관점을 포용하는 Project입니다. 개인이 읽은 기사를 토대로 관심사를 추적하고 그가 속한 세계 밖의 기사를 찾아서 추천합니다. 편향된 세계에서의 탈출은 '너'와 '나'의 Gap을 좁히고, 스스로의 세계를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필터 버블을 스캔하다”

1. 사업 정의

가. 본 서비스는 현대 사회의 정보 편식 현상을 해소하고자 바코드라는 상징적 메타포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뉴스 소비 패턴을 새롭게 해석하는 혁신적인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ECBS(Everything Can be Scanned)'다.

2. 디자인 철학

가. 본 서비스가 바코드를 핵심 메타포로 채택한 것은 다음과 같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1) 바코드는 상품을 객관적으로 식별하고 분류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본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편향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자 한다.
- 2) 시중의 모든 상품이 고유한 바코드를 통해 식별된다. 본 서비스는 각각의 뉴스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관점과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 3) 바코드 스캐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읽어낸다. 본 서비스는 사용자의 뉴스 소비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균형 잡힌 정보 소비를 지원하고자 한다.

III. 서비스 전략

본 서비스 전략은 현대 사회의 뉴스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기존 언론사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고자 한다.

가.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1) About 페이지 구성 - 서비스 소개 영상 제작 - 기존 뉴스 소비 방식과의 차별화 강조 - 혁신적 서비스 컨셉의 시각적 표현 - 다양성과 포용성 중심의 메시지 전달

나. 혁신적 사용자 경험 설계

1) 바코드 기반 UI/UX - 직관적 카테고리 구분 - 바코드 메타포를 활용한 정보 분류 -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구현 - 시각적 임팩트를 통한 몰입도 향상
다. 뉴스 소비 패턴 시각화

1) 맞춤형 추천 시스템 구축 - RAG 기반 추천 알고리즘 - 맥락 기반 뉴스 추천 시스템 구현 - 사용자 관심사 기반 확장형 추천 방식

1) 서비스 차별화 요소 - 간결한 헤드라인 전략 - 편향성 최소화 - 객관적 사실 중심의 제목 구성 - 감정적 자극 요소 배제 - 명확성과 간결성 추구

관점의 뉴스를 균형 있게 소비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사용자들이 자신의 뉴스 소비 패턴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알고리즘의 영향력을 인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정보 소비자로서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AG 기반의 맞춤형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들에게 '왜 이 뉴스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능동적인 정보 소비를 촉진할 것이다.

3. 미래세대에게 뉴스 경험 제공
심층적인 분석과 다각적 관점을 제시하는 콘텐츠 전략을 통해 기존 언론의 한계를 극복한다.

'쉬는 청년' 담론의 재구성

기존 보도의 한계

- 경제적 생산성 중심의 부정적 시각

- 통계 수치로만 바라보는 피상적 접근

- 문제 해결보다는 현상 비판에 치중

새로운 관점 제시

- '쉽'의 사회적 가치 재조명

- RAG 기반 댓글 분석을 통한 여론 변화 추적

- 당사자 인터뷰를 통한 현장감 있는 스토리텔링

차별화된 표현 방식

- 스토리텔링형 인터랙티브 요소 활용

- 데이터 시각화

기대효과

1. 현대 사회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알고리즘 편식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관점의 뉴스를 균형있게 소비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사용자들이 자신의 뉴스 소비 패턴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알고리즘의 영향력을 인지할수 있게 됨으로써 디지털 정보 소비자로서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AG 기반의 맞춤형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들에게 '왜 이뉴스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맥락으 제공함으로써 능동적인 정보 소비를 촉진할 것이다. 심층적인 분석과 다각적 관점을 제시하는 콘텐츠 전략을 통해 기존 언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적합한 새로운 형태디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특정 사용자가 읽은 뉴스 카테고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출력값입니다. 제공된 데이터는 감정, 대분야, 소분야, 유형의 순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기사의 논조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균형적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대분야는 경제와 사회 문화라는 큰 카테고리이고 소분야는 그에 속하는 분야입니다.
유형은 대분야와 소분야를 토대로 관심사를 유형화한 것입니다.
자신이 읽은 뉴스를 가지고 밑에 방식으로 영수증이 출력됩니다.
Address: ECBS from Seoul, South Korea
Date: [2024-11]Description-----[소분야]를 선택한 당신은 [유형]입니다!
[대분야] 분야 중 [소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추가적인 특징 1]
[추가적인 특징 2]

영수증 안에 있는 내용은 대분야, 소분야, 감정으로 분류됩니다.

대분야와 소분야

- **대분야:** 경제, 사회, 문화라는 큰 범주로 기사를 분류하여 해당 기사가 어떤 주요 영역에 속하는지 파악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 **소분야:** 대분야를 세분화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기사의 주제를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대분야 안에 금융/재테크, 부동산, 창업/산업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더 구체적인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감정 (비판, 낙관, 균형)

- **비판:** 기사가 특정 주제에 대해 문제점이나 부정적인 시각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의 실패나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에 해당합니다.
- **낙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시각으로 주제를 다룹니다. 성공 사례, 혁신, 긍정적인 변화 등을 다룰 때 이 감정이 적용됩니다.
- **균형:** 비판과 낙관을 조화롭게 다루며, 주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장단점을 모두 설명하며 독자에게 판단을 맡기는 스타일의 기사입니다.

이 분류는 챗GPT가 기사 텍스트를 분석하여, 단어의 톤이나 문맥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분야 별칭

1. 금융/재테크 -> "한국의 워렌버핏"

- 금융 시장에서 투자와 자산 관리를 다루는 전문가 같은 태도를 지칭합니다. 주식, 채권, 암호화폐 투자와 재테크 팁을 통해 부를 증대하려는 사람들에게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2. 부동산 -> "아마도 땅부자"

- 부동산 매매, 임대, 개발 등의 이슈를 파악하며, 땅과 건물을 통한 자산 증식과 시장 동향을

탐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땅부자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주제입니다.

3. 생활경제 -> "알뜰 살림꾼"

- 소비자 물가와 가게 절약을 중시하며, 작은 돈도 알차게 쓰려는 살림의 달인을 지칭합니다. 절약 노하우, 할인 정보 등 실질적인 경제 팁을 제공합니다.

4. 창업/산업 -> "프론티어"

- 스타트업, 창업, 산업 변화의 선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개척자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사업 모델이나 산업의 변화 흐름을 다룹니다.

5. 경제일반 -> "경제 분석가"

- 거시 경제부터 글로벌 트렌드까지 분석하며, 경제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사람을 표현합니다. 환율, 통화 정책, 경제 지표 등을 다룹니다.

6. 사건/사고 -> "현장추적자"

-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과 사고를 추적하고 이를 파헤치는 역할을 나타냅니다. 범죄, 재난,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들의 진행 상황과 배경을 조명합니다.

7. 법원/검찰 -> "판례 수집가"

- 법적 사건이나 판례를 모으고 분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적 논쟁, 재판 결과, 형사 및 민사 사건과 같은 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8. 노동 -> "일터 지킴이"

-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노동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노동 정책, 근로자의 권리, 고용 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9. 보건/복지 -> "삶의 질 설계자"

- 건강과 복지 제도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의료 서비스, 복지 혜택, 건강 관리 팁 등을 다룹니다.

10. 젠더 -> "젠더 감수성 만렙"

- 성평등과 성별에 관련된 이슈를 민감하고 깊이 있게 다루는 사람을 뜻합니다. 젠더 갈등, 평등 정책, 성소수자 이슈를 다룹니다.

11. 사회일반 -> "시사 마스터"

- 특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마스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변화, 지역 문제, 시민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12. 문화 -> "삶의 향유자"

- 예술, 공연, 문학, 음식, 패션 등 문화를 향유하며 즐기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사회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다양한 콘텐츠를 다룹니다

export default

```
[ { id: 1, title: 'Fwee in NYC', content: [ "메이크업 브랜드 fwee(퓨)가 미국 LA, 뉴욕에서 첫 트럭팝업을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fwee는 LA 더 그로브에서 10월 19일과 20일 첫 미주지역 트럭팝업을 진행하였으며 팝업을 찾은 인파의 행렬이 두 블록을 넘길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지난 10월 26일과 27일은 뉴욕 소호 지역에서 양일간 팝업 행사를 진행하여 대기시간만 3시간을 기록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는 것이 브랜드 측의 설명이다.", "fwee는 LA와 뉴욕에서 각각 준비한 증정 수량을 모두 소진하며 아시아를 넘어 북미 시장에서도 가장 핫한 브랜드 중 하나로 떠올랐다.", "fwee는 2021년 런칭하여 대표제품 푸딩팟을 필두로 MZ세대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브랜드이다.", "뷰티업계에서는 2024년 팟타입 립앤치크 제품의 유행을 선도한 트렌드세터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미국 트럭 팝업에서도 30가지 푸딩팟을 테스트하는 체험존을 진행하여 팝업 시작 전 오픈런 대기줄을 이뤘고 미국 고객들의 푸딩팟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실감케 했다.", "fwee 공식 SNS를 팔로우 시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펜던트 키링을 미국 트럭팝업 한정 굿즈로 증정하자 트럭팝업을 인증하는 게시물이 SNS에 잇따라 게시됐다.",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미국 트럭팝업 게시물에 한 이용자는 '퓨가 뉴욕시티에 오다니 믿을 수 없다. 라스베이거스에도 와달라'며 다음 팝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팝업 행사 일정에 맞춰 틱톡 플랫폼에 퓨 립앤치크 블러리 푸딩팟 30가지 컬러를 가상으로 테스트해볼 수 있는 필터를 배포하고 팝업에서만 확인 가능한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베스트셀러 '푸딩팟'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미국 시장에서 fwee는 1570만 유튜브 구독자를 가진 대표 뷰티 인플루언서인 제프리스타의 틱톡계정에 단독으로 소개될 만큼 신혼 K-뷰티 브랜드로 각광받고 있다.", "퓨 마케팅 담당자는 '미국 고객님들과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픈런 행렬이 이어져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미국 트럭팝업을 시작으로 미국 시장에서 본 적 없는 신선한 메이크업 브랜드로 다가가며 미국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author: '황소영 기자', date: '[2024-10-29]',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0/29/130317054.1.jpg', iconimgUrl: 'https://imgur.com/7rmjNoV.png', 대분야: '경제', 소분야: '창업산업', 감정: '낙관', 유형: '프론티어' }, { id: 2, title: '장기요양보험', content: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동결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

29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9년 0.5497%, 2020년 0.6837%, 2021년 0.7903%, 2022년 0.8577%, 2023년 0.9082%, 2024년 0.9182%로 올랐다. 복지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에는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 8만4240원에서 9만450원으로 6210원 늘며,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1만6848원에서 1만8090원으로 1242원 증가한다.", " 정부는 이와 함께 중증 수급자나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10일인 단기보호를 내년 11일로 늘리고, 종일방문요양도 올해 20회 한도에서 내년 22회로 늘리기로 했다.", " 아울러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시범사업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author: '김혜린 기자', date: ['2024-10-29'],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0/29/130316216.3.jpg', iconimgUrl: 'https://imgur.com/u8iIFNt.png', 대분야: '경제', 소분야: '생활경제', 감정: '균형', 유형: '알뜰 살림꾼', },

{ id: 3, title: "美 반도체 규제 강화",

content: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에 대한 견제를 늦추지 않고 있다. 사실상 이번 대선 결과와 상관 없이 미국은 대중 규제의 고삐를 풀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전날(현지 시각)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앞서 미국 행정부가 공개한 ▲2023년 8월 ANPRM(규정 제정 사전 공고) ▲올해 7월 NPRM(규정 제정 공고)에 이어 세부 규칙을 내놓은 것이다.",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최종규칙에 따라 미국인들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특정 기술이나 제품을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의 개인과 거래하는 것은 금지된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우려 국가로 규정했다.", "규제 대상은 ▲첨단 반도체 설계·제조, 패키징 ▲양자컴퓨팅 ▲AI(인공지능) 시스템 등이다.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을 억제해, 군사·기술 면에서 미국을 앞서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중국에 대해 첨단 반도체 기술 통제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14나노미터(nm·10억분의 1) 이하 로직 칩, 18나노 이하 공정의 D램, 128단 이상의 낸드 관련 기술과 장비에 대해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됐다. 하지만 중국은 이 통제망을 뚫고 일부 분야에서 첨단 기술 개발에 진전을 이뤘다.", "최근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가 3나노 스마트폰용 칩이 성공적으로 설계를 마치고 양산을 앞두고 있는 사실이 단적인 예다. 화웨이의 인공지능 반도체 '어센드910B'에 TSMC의 첨단 파운드리 기술이 활용된 것도 눈에 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대중국

규제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대중 규제 압력을 받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 ASML의 크리스토프 푸케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상황을 보면 미국이 동맹국에 더 많은 제한을 요구하는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은 한국 반도체 기업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 규제가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부추기며 한국 반도체 기업들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이 레거시(구형) 반도체 자립에 나서면서, 한국산 제품을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 들린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국 메모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7.9%로, 12년 만에 처음 40%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중국 D램 기업인 CXMT의 비트(Bit) 생산량 기준 시장 점유율은 올해 4%에서 내년 9%로 커질 전망이다. 중국 낸드 업체 YMTC도 이미 한국 업체들보다 적층 기술에서는 한 수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들린다.", "현재 CXMT는 17나노급 공정 전환을 추진 중이며, 오는 2026년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HBM(고대역폭메모리) 샘플을 출하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최신 HBM 제조에 사용하는 D램 기술은 10나노급 5세대(12~13나노) 수준으로, 아직 한층 간 기술 격차가 크고, 기술 확보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미국 과학분야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지난달 발간한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국가로 급부상하는 중국'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10~20년 내에 대부분의 첨단 산업에서 글로벌 혁신 선두에 있거나 매우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십 년 안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 규제를 가하는 세상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author: '뉴시스', date: ['2024-10-29'],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0/29/130317254.1.jpg', iconimgUrl: 'https://imgur.com/6ldnzh.png', 대분야: '경제', 소분야: '경제일반', 감정: '비판', 유형: '경제 분석가', },

{ id: 4, title: '집게손가락',

content: ["네이버웹툰이 최근 여성 이용자들의 불매 운동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최근에는 네이버웹툰 인스타그램에 집게손가락을 한 일러스트로 남성 이용자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남녀 갈등뿐만 아니라 여러 이념 갈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 네이버웹툰은 작품 수정과 사과를 거듭하고 있다. 검열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웹툰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네이버웹툰의 '웹툰프렌즈'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한 일러스트가 '집게손가락' 모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다.", "어느샌가 엄지와 검지를 집게 모양으로 만든 손가락이 남성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집게손가락 모양은 '작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일상적으로 써왔지만 유통업계, 게임업계가 집게손가락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수정을 하고 사과문을 올리면서 '남혐'(남자혐오)의 상징으로 굳어졌다.", "현재 네이버웹툰은 '퐁퐁남' 때문에 여성 유저들이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베스트도전에 올라온 '이세계 퐁퐁남'이 공모전 1차 심사를 통과해 비판을 받았다.", "퐁퐁남은 연애 경험이 많은 여성과 결혼한 경력력있고 순진한 남성을 조롱하는 신조어다.", "논란이 거세지자 작가 '퐁퐁'은 "'퐁퐁남'과 '설거지론'은 2000년대 초에도 사용된 주식용어로 여성혐오를 옹호하지 않는다"고 입장문을 올렸다.", "이념적인 문제도 불거졌다. 인기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을 웹툰 버전으로 연재하면서 제작사 측이 한강 작가를 대사에서 삭제한 것이다.", "원작의 '무라카미 하루키라든가, 레이먼드 카버라든가, 한강이라든가'라는 대사는 웹툰에서 '한강이라든가' 부분이 삭제된 채 올라왔다.", "이후 웹툰 제작사 레드아이스 스튜디오 측은 대사를 다시 수정하면서 '4년 전 연재 당시 대사들을 간략하게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웹툰에 과도한 검열을 요구하면 결국 플랫폼의 경쟁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자율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합의를점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네이버웹툰은 '집게손가락'도 '퐁퐁남'도 특정 집단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하게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은 작품을 소개하고 새로운 작품을 발굴해서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 "창작의 자유를 존중하고 작가들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때 산업은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특정 플랫폼이 '이건 맞다, 아니다'를 검열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면서 "네이버웹툰이 논란에 모두 대응하는 것도 산업의 성장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uthor: '뉴스1',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0/29/130314988.1.jpg', iconimgUrl: 'https://imgur.com/2enD1VV.png', date: ['2024-10-29'], 분야: '사회', 소분야: '젠더', 감정: '균형', 유형: '젠더 감수성 만렙', },

{ id: 5, title: '금값 역대급 고점',

content: ["국제 금값이 '역사적 고점'을 연일 경신하며 끝없이 오르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와 미국 대선, 지정학적 긴장 등이 전통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내년에도 '골드 랠리'가 지속되면서 온스당 3000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금 올 들어 33% 상승... 은도 40%↑",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8일 금 1kg 현물의 g당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77% 오른 12만9190원에 마감했다. 순금 한 돈(3.75g)의 가격은 50만 원을 넘어섰다.", "미국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25일 종가 기준 온스당 2754.60달러까지 올랐다. 지난달 온스당 26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이달 27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금 선물 가격은 올 들어 약 33% 치솟았다.", "금값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등 투자 상품들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유일 금 현물 ETF인 'ACE KRX금현물' 순자산총액은 25일 기준 4659억 원으로 지난해 말(1095억 원)보다 무려 325.4% 증가했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47.81%에 달한다. 금 선물과 연동한 'KODEX 골드선물(H)'과 'TIGER 골드선물(H)' 등은 올 들어 각각 26.33%, 26.14% 올랐다.", "은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 COMEX에서 12월 인도분 은 가격은 25일 온스당 33.78달러까지 올라 연초 이후 40% 넘게 상승했다. 은은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재로 쓰이면서 금과 함께 안전자산으로 여겨진다.", "내년에도 '골드 랠리'... 3000달러 돌파 가능성", "시장에서는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시작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진 것이 금에 대한 수요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한다.", "통상 유동성이 풀리면 화폐가치는 떨어지는 데 반해 실물자산인 금은 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 "특히 신흥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연기금 등이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할 자산으로 금을 선택해 꾸준히 금괴를 사 모으고 있다.",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 세계 금 소비의 23.6%를 중앙은행이 차지해 2022년(22.8%) 이후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또한 금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는 기업 법인세 감면, 관세 인상 등이 실제로 시행되면 재정 악화 가능성이 커져 국채 발행이 늘고, 그 결과 채권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국채 대신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금 가격 상승 사이클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매우 빠른 상승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온스당 3000달러를 넘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순 리스크 관리를 넘어, 미 국채와 달러화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품고 금을 장기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보유하려는 수요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author: '신아형 기자', date: ['2024-10-29'],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0/28/130313884.1.jpg', iconimgUrl: 'https://imgur.com/6qsQmzL.png', 대분야: '경제', 소분야: '금융/테크', 감정: '균형', 유형: '한국의 워렌버핏', },

{ id: 6, title: '서울 원룸 73만원',

content: ["9월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73만원,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1388만원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지난달 서울 25개 자치구별 연립·다세대 원룸 전·월세 수준을 분석한 '9월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직전월인 8월과 비교해 평균 월세는 2.6%(2만원), 전세보증금은 0.4%(76만원) 올랐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 평균 대비 월세가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 125%(91만원)로 두 달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영등포구(122%), 중랑·용산구(119%), 강서구(116%), 서초구(113%), 구로구(109%), 관악구(107%), 강북구(104%), 금천·광진구(103%) 등 총 11곳의 월세가 서울 평균을 상회했다.", "평균 전세보증금은 서초구가 128%(2억732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구(123%), 강남구(121%), 용산구(115%), 영등포구(112%) 등 8개 지역의 전세보증금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8월과 비교해 평균 전세 보증금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북구로, 8월 8700만원에서 9월 1억316만원으로 19%(1616만원) 상승했다. 평균 월세는 도봉구가 8월 46만원에서 9월 66만원으로 45%(20만원)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다방여지도는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추출한 자치구별 평균 월세와 평균 전세 보증금을 서울 지역 평균과 비교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지도다. 서울 평균 시세를 기준(100%)으로 봤을 때, 100%보다 높으면 해당 자치구의 원룸 시세가 평균보다 높다는 의미다.", "한편, 다방은 지난 5월부터 '4월 다방여지도'를 시작으로 매달 마지막 주에 '다방여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9월 다방여지도는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지난달 서울 지역에서 거래된 전용면적 33㎡ 이하 연립·다세대 원룸을 대상으로 제작했다."], author: '뉴시스', date: ['2024-10-29'],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0/29/130315031.1.jpg', iconimgUrl:

'https://imgur.com/BoPTb0C.png', 대분야: '경제', 소분야: '부동산', 감정: '균형', 유형: '아마도 땅부자', },

{ id: 7, title: '아파트 입주 물량 ↑', content: ["다음 달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5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1만2000여 채 규모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입주가 시작되는 영향이다.", "28일 직방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2784채로 전년 동기(6702채) 대비 90.7%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2018년 12월 1만3022채 이후 가장 많다.", "물량 증가는 1만2032채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영향이 크다. 11월 서울 입주 물량의 94%를 이 단지가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은평구에서 752채 규모인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국에서 입주하는 아파트 10채 중 7채는 수도권에 몰렸다.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9개 단지, 3만744채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15개 단지, 2만2852채(74%)다.", "지방은 14개 단지, 7892채(26%)다. 지방은 올해 중 가장 입주 물량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직방 측은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최근 집단대출과 정책대출까지 조이고 있어 주택 수요자의 자금 유통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당분간 주택 시장 분위기가 관망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author: '이축복 기자', date: ['2024-10-29'],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07/09/125847723.1.jpg', iconimgUrl: 'https://imgur.com/kkhtrF5.png', 대분야: '경제', 소분야: '부동산', 감정: '균형', 유형: '아마도 땅부자', },

{ id: 8, title: '줄어드는 공인중개사',

content: ["부동산 거래 침체로 공인중개사 업계의 위축이 가속화되면서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연이어 줄어들고 있다. 폐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신규 개업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지원자 역시 급감하는 추세다.", "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1만 3043명으로 지난달보다 104명 감소했다. 2022년 6월 11만 8952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이후 5909명이 줄어들어 19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업소는 707곳으로 전월 대비 46곳 감소해, 2020년 협회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달 폐업한 중개업소는 902곳에 달했고, 휴업을 포함한 전체 휴·폐업 건수는 1002곳으로 신규 개업 수를 크게 웃돌았다.", "중개업계의 수익성 악화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지원자 감소로 이어졌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에는 자격시험 접수자가 약 40만 명(39만 9975명)에 육박했으나, 올해 접수자는 21만 5081명으로 3년 전과 비교해 약 44% 줄었다. 실질적인 응시자 수도 7만 2666명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와 높은 시중 대출금리, 그리고 줄어든 가처분 소득으로 인해 주택 구입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거래 절벽이 계속된다면 중개업계의 어려움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author: '뉴스1', date: ['2024-10-29'],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0/29/130318018.1.jpg', iconimgUrl: 'https://imgur.com/rdpSzYH.png', 대분야: '경제', 소분야: '경제일반', 감정: '비판', 유형: '경제

분석가', },

{ id: 9, title: '기름값 올라간다',

content: ["정부의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42원, 경유는 41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4원 인상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업계와 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세 일부를 환원하는 조치 관련 조치사항과 최근 중동정세 불안 관련 대비사항을 논의했다.", "이 같은 유류세 환원 조치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면서 유가가 소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최근 유가와 물가가 안정됐다고 판단, 유류세 인하율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20%→15%), 경유(30%→23%), LPG(30%→23%) 등으로 조절됐다.", "산업부는 이에 앞서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급격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아울러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업계와 기관의 대응태세도 점검했다. 지난 26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습을 시행한 가운데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급 상황에는 이상이 없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축 현황 점검에 나섰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기준 약 7개월 지속가능한 비축유와 법정 비축 의무량을 웃도는 가스 재고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와 기관, 업계 사이 비상연락망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세계 수요 둔화 등으로 배럴 당 70달러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중동 정세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유소와 업계 등은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주고, 알뜰주유소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author: '뉴시스', date: ['2024-10-29'],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0/29/130315931.1.jpg', iconimgUrl: 'https://imgur.com/WRXOSG9.png', 대분야: '경제', 소분야: '생활경제', 감정: '균형', 유형: '알뜰살림꾼', },

{ id: 10, title: '990원 채소',

content: ["고물가로 저렴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990원 채소'가 진열됐다.", "해당 채소는 양파, 대파, 마늘, 당근 등 9종으로, 1~2인 가구가 요리하기 적합한 한 끼 분량으로 개별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이와 같은 소형 포장 채소를 99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고물가 시대의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author: '뉴스1', date: ['2024-10-29'],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0/28/130310351.7.jpg', iconimgUrl: 'https://imgur.com/pZldDGR.png', 대분야: '경제', 소분야: '생활경제', 감정: '균형', 유형: '알뜰살림꾼', },

{ id: 11, title: '변화하는 AI',

content: [], author: '박민경', imgUrl: '', iconimgUrl: 'https://imgur.com/ElHEKdc.png', date: ['2024-

11-13], 대분야: '경제', 소분야: '창업산업', 감정: '균형', 유형: '프론티어', }, content: [챗gpt의 2년 -. Ai 를 둘러싼 '낙관주의' 와 '비관주의' - Ai 기술, 우리의 직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빠르게 변하는 세상, 이제는 대비가 필수 타임라인으로 정리했다.

I 발전과 노동시장 변화, 그리고 기본소득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노동시장과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AI 기술이 우리 사회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에 비해,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준비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AI 기술, 우리의 직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AI 기술은 단순히 기존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을 넘어, 창의적인 업무까지도 대체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기존의 정보 검색, 콘텐츠 제작, 데이터 분석 등을 자동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로 인해 많은 직무가 AI에 의해 대체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직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2024년을 기점으로 AI는 언론, 의료, 법률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는 뉴스 기사를 작성하거나, 판사의 판결을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우리는 직업의 종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낙관주의 vs. 비관주의: AI에 대한 두 가지 시각

AI에 대한 시각은 크게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로 나뉜다. 낙관적인 시각에서는 AI 기술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들의 삶을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본다. 특히 AI는 반복적인 작업을 대체하고, 사람들이 더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반면, 비관적인 시각에서는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무는 인간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업무에 걸쳐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대격변을 예고한다. AI가 사람의 직업을 대체하게 되면, 기존 사회보장 제도의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이제는 대비가 필수

AI의 발전 속도에 따라 사회 구조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 직무 대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AI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AI와 자동화 관련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책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 개인과 기업, 정부 모두가 AI로 인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본소득, AI 대체 일자리의 사회 안전망으로 떠오르다

AI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통해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재취업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최병천 신성장경제 연구소장은 "AI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기본소득은 생계 보장을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개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그 효과를 입증한 사례로 꼽힌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핀란드의 실험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매달 560유로를 지급했으며, 실험 결과,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학습 및 재교육에 집중한 비율이 높았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기본소득의 도입을 통해 AI로 인한 직업 대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AI 기술과 관련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직업 재교육 및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AI와 공존할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 역량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제도적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 고려대 경제학과 강규호 교수는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서는 기술 역량 강화와 함께 사회적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의 급속한 발전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 이상 AI 발전에 대한 방관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AI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AI와 미디어 산업: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

AI 기술의 발전은 미디어 산업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서울 신촌의 한 교육센터에서는 청년들이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제작 교육을 받고 있다. 이 교육 과정에서는 AI를 활용한 뉴스 기사 작성, 텍스트 요약, 자료 조사 등 다양한 미디어 업무를 자동화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교육생들은 AI 기술이 미디어 산업의 업무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AI가 도입된 미디어 산업에서는 기존의 수작업 방식보다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며, 청년들은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김영준 교수는 "미디어 업계는 AI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AI는 기사 작성뿐만 아니라 자료 분석, 영상 편집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 기술이 기자들의 창의적인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질문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역할과 존재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필요하다. AI가 초래할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 특히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지능을 초과할 '특이점(Singularity)'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이은수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고유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AI의 발전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AI와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id: 12, title: '쉬는 청년', content: [취업? "잠시만요" 쉬었음 청년이 말하는 쉬는 이유

[편집자주]

지난 7월 통계청이 발표한 '15-29세 청년 구직기간'은 평균 11.5개월. 첫 직장을 찾는 데 1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역대 최장 기간이다.

"***요즘' 취업이 어렵다"는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같은 통계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은 역대 세 번째로 높고, 25세에서 29세까지 고용률은 역대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청년들의 현실은 초라하다. 단기 알바와 계약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질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 대졸자의 대기업 취업문은 여전히 바늘구멍이다.

여기에 새로운 '무리'가 나타났다. 취업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과 별도로 '구직'이라는 말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른바 '쉬는 청년'들이다.

intro #1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국가의 저성장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203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을 0.8%p 낮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청년들의 사회 진입까지 지연되면 저성장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저성장 사회에서 일명 '쉬었음' 청년이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쉬는 청년'은 누구일까. 이들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현재 취업을 준비하지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다고 분류된 청년"들이다.

쉬는 청년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GAPPY가 지난 6월부터 11월 7일까지 '쉬었음', '쉬는 청년'을 키워드로 네이버의 뉴스 댓글을 분석한 결과, 총 72개의 기사에 달린 3214개의 댓글 중 '쉬는 청년'을 향한 부정적 인식이 78.7%를 차지했다. 옹호적 여론은 3.7%에 그쳤으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은 8.7%였다.

intro #2

'쉬는 청년'에 대한 여론이 비판적인 이유는 명확하다.

일터에서 빠져나가는 청년 세대 때문에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젊은 세대의 경제활동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에서 청년들의 '쉬'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쉬는 청년은 정말 사회적인 문제일까? GAPPY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쉬었음' 항목으로 분류됐거나, 현재 분류된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 낯선 땅에서 찾은 '나다움'의 가치

남보연 씨(가명, 25)는 통계상으로는 '쉬는 청년'이지만 자기의 적성을 찾으며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

심리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한 남 씨는 취업 혹은 대학원 진학 등 누구나 예상하는 '다음 단계'를 선택하지 않았다. 2023년 2월 초 대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보름 만에 호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삶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어요. 줄곧 도서관에서 살곤 했지만, 그 시간들이 정작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기력했고 자존감도 많이 낮았죠. 일단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대학원 진학도 고민했지만, 계속 공부만 해온 자신의 모습에 지쳐있었다. 심리학 자격증을 따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다. "원래는 낯선 환경을 최대한 피하고 무서워하는 성격이었는데, '될 대로 되겠지'하는 마음으로 도전했어요."

처음에는 3개월 관광비자로 시작했다. 하지만 시드니에서 보낸 2개월 동안 생각이 바뀌었다. "타지에서 일상을 가꾸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모호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많은 경험을 해보자 싶었죠."

그녀는 학생비자로 전환해 현지 직업학교(TAFE)에서 커뮤니티 서비스를 공부했다. 학업과 함께

식당 서빙도 시작했다. 집에서 왕복 3시간 거리를 오가며 일주일에 2-3일, 하루 4시간 반씩 일했다. 지인의 추천으로 들어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일자리였다. 이후 초밥집, 쇼핑몰 플랫폼 사무직도 거쳤다. 6개월 후에는 정식 절차를 밟아 호텔 웨이트리스로 일하기도 했다.

"처음엔 두려웠던 것들이 하나둘 극복되더라고요. 낯선 환경에서 혼자 살면서 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영어로 의사소통하면서 끝내 제 힘으로 일자리도 구했잖아요. 자존감이 조금씩 높아지는 걸 느꼈어요."

호주 생활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성공'에 대한 관점의 변화였다. "한국에서는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기준이 획일적이예요. 반면 호주에서는 학교를 가지 않거나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맹목적으로 사회가 정한 가치를 따르기보다는 '나다움'이 무엇인지 꾸준히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죠 "

"요즘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타인의 가치나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고,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잠시 멈춰 서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진정한 '나다움'을 찾는 여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씬은 개인의 도피가 아니다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션'을 선택하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낮은 자존감이나 불안한 정신 상태 등 개인적인 문제를 꼽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이은경 명지대 청소년심리학과 교수(한국상담심리학회 법인이사)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입시경쟁에 시달리는 것이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면서, 청년들은 진정한 의미의 성취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존감이 낮다'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경쟁적인 사회에서 청년들은 자율적이고 긍정적인 성취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션과 회복은 하나의 발달 단계로 봐야 합니다. 결코 나쁜 것이 아니예요."

입시 경쟁으로 인해 낮아진 자존감은 결국 일상생활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션'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교수는 '강조한다. 자발적인 션과 비자발적인 션이다. 현재 청년들 중 약 3분의 2는 비자발적으로 쉬게 된 경우가 많다는 것. "이런 친구들에게는 쉼이라고 했을 때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고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취업 시장의 치열한 경쟁도 청년들의 '션'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취업의 자리가 청년에게 그리 호의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일자리라는 게 경력도 필요하고 조직 적응도

필요한데, 이런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에게는 첫 번째 자리가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거죠."

다른 한편, 어려운 취업의 첫 관문을 화려하게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을 선택한 청년도 있다.

삼성전자 IMC팀에서 일하다 퇴사를 선택한 김보 작가의 이야기다.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도 마케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공모전 헌터', 촉망받는 신입사원, 그리고 이제는 '게으름'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작가. 그의 이력은 독특하다. 그의 선택은 늘 남달랐다.

- 회사의 보호색을 벗고, 자신만의 색을 찾아 떠나다

"디자인과를 다니면서도 느꼈어요. 열심히 디자인하고 레퍼런스 모으는 친구들을 보며 '나는 저 정도의 열정은 없다'고 생각했죠. 최고가 되지 않을 거라면 어중간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학 8년, 네 번의 휴학. 그는 '게으르다'고 자평했지만, 실은 쉽 없이 도전했다. 에버랜드에서 일하기도 하고, 미국도 다녀왔다. 25살, 3학년이 되어서야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했다. "디자이너는 하기 싫었어요. 박봉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내게 그만한 예술적 재능이 있는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차라리 말로 표현하거나 기획하는 게 더 잘 맞을 것 같았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공모전이었다. "공부는 못해도 경쟁하는 건 자신 있었어요." 3년 동안 50개가 넘는 마케팅 공모전에 도전해 20개 이상 수상했다. 삼성전자 공모전 대상도 거머쥐었다. 졸업과 동시에 삼성전자 IMC팀에 입사했다. 신입으로는 들어가기 힘든 부서였다.

"적성에는 잘 맞았어요. 하지만 회사는 개인의 색깔보다 '대체 가능한 인재'를 원했죠. 서울대를 나왔든, 화려한 스펙이 있든, 결국 다 평범해져야 했어요. 게다가 부장님이 지독한 분이였죠. '너 이런 식으로 눈을 떠? 그렇게 눈 뜨려면 실력이 더 있어야 해' 이런 식으로 2-3시간씩 훈계하셨던 적도 있어요."

회사 생활과 별개로 그의 도전은 계속됐다. 유튜브에 커버곡을 올리고, 그림도 그렸다. 국제 광고제 클리오에서 은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이 오히려 족쇄가 됐다.

"조금만 피곤한 기색이 보이면 '유튜브 하느라 그러냐', '그런 실력이 있으면 회사 일은 왜 이 정도냐'는 말을 들었죠. 결국 깨달았어요. 회사에서는 자신을 최대한 숨기는 게 좋다는 걸요. 그게 일종의 보호색이었던 거죠."

3년차가 되자 위기가 찾아왔다. 소위 '3년차병'이다. "회사에서는 '3년만 버티면 괜찮아진다'고 해요. 조직에 익숙해지고, 대리로 승진하면서 안정되니까요.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어요. 내 색깔이 완전히 사라질까 봐."

결국 1년의 자기계발휴직을 선택했다. 그 기간 동안 스타트업 두 곳을 경험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 파티룸 사업. 둘 다 실패했다.

"자기계발휴직 때는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났어요. 지금은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았죠. 그때는 몰랐는데, 실은 쉽이 필요했나 봐요."

현재 그는 게으름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150편의 만화와 100편의 글을 썼다. "아직 경제적으로는 불안정하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회사에 있었다면 볼 수 없었을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거든요. 제 철학이 하나둘 쌓이는 걸 느껴요."

"사실 게으름이든 부지런함이든 다 헛수고예요. 자기 주체성이 없다면요. 저는 회사를 나와서 가장 주체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다른 기준에 맞추지 않고요. 언젠가 제 이름을 알리고, 뚜렷한 색깔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영감도 주고, 누군가의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람ियो."

김보 작가의 사례처럼,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아를 잃어가는 경험은 다른 청년들에게서도 발견된다. 식품유통업계에서 일하다 퇴사 후 '쉬었음' 청년을 선택한 양희연(27)씨의 이야기도 비슷하다. "의사결정이 수시로 바뀌고, 비효율적인 업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기 힘들었어요." 그는 퇴사 후 달라진 점으로 "'화'가 없어졌다"고 말한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 퇴사하고 나서야 깨달았죠."

양희연씨는 '쉬는 청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대해 "언론에서는 '일할 의지가 없다', '그저 놀려고 한다'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다루지만, 실제 주변에선 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고 말했다.

(=> 요기에 아래에 대안 내용 관련 소제목 하나 더 달아줘서 위 내용이랑 구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 청년들의 '쉼'의 의미 다시 봐야

이은경 명지대 청소년심리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청년이 쉬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고, 쉬는 청년을 실패자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청년의 '쉼'이 가진 의미와 가치, 그리고 이를 통한 회복과 성장의 가능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각 지자체는 청년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과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수는 "단순히 시설을 만드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심리적 지원을 받고 같은 경험을 가진 이들과 연대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호주에서 1년간의 여정을 마친 남보연씨는 '쉼'이 도전을 통한 회복이라고 말한다. 양희연씨도 쉼을 "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정의했다. 청년들의 '쉼'을 실패자의 선택이 아닌,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과정으로 바라봐야 할 시점이다.], author: '정세진', imgUrl: "", iconimgUrl: 'https://imgur.com/mxWQk7b.png', date: ['2024-11-13'], 대분야: '사회', 소분야: '창업산업', 감정: '균형', 유형: '프론티어', },

{ id: 13, title: '청소년 성교육',

content: [75.8%.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중 미성년자 비중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65.4%, 2022년 61.2%, 2023년에는 75.8%로 10.4%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73.6%를 기록했다.
이는 10대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2020년 있었던 n번방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났다. 당시에도 핵심 가해자들은 ‘부따’ 강훈(18) , ‘태평양’(16) 등 10대 피의자가 다수였다. 게임 메신저 디스코드를 통해 성착취물이 유포된 사건도 가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였다. 운영자 중 한명은 범행 당시 12세 초등학생이었다.
최근 경찰이 8월 26일부터 5일간 딥페이크 성범죄를 특별 단속한 결과, 검거된 피의자 7명 가운데 6명이 1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비율도 미성년자가 높다. 2021 ~ 2023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로 나타났으며, 피해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그냥 재밌잖아요”
더욱 심각한 것은 아이들의 범죄엔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희롱과 추행과 같은 범죄를 장난삼아 그랬다는 말로 무마했다. 가해자들은 그저 성범죄를 하나의 놀이처럼 취급하고 있다.
갈수록 성범죄 가해자 연령대가 어려워지고, 더 잔혹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성교육의 부재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10대들을 위한 성교육은 어떤 상황일까.2015년에 멈춘 녹슨 시선
현재 우리나라는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연간 15시간의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실상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교육 영상으로 대체하는 등 형식적인 교육뿐이다. 통일된 수업 커리큘럼이나 교육 지침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교육 자료가 2015년 이후 전혀 수정되지 않아 시대착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문제다. 2015년 교육부가 보급한 ‘성교육 표준안’에는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라거나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이성친구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등의 표현이 담겼다. 또 ‘성관계는 늦으면 늦을수록, 성관계 파트너가 적으면 적을수록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남성은 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성들과 널리 성교할 수 있다’ 등의 문구도 담고 있다.2시간에 5만원, 성교육의 사교육화

학부모들은 양질의 성교육을 위해 학원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의 한 사설 성교육 업체는 주말의 경우 2025년 2월까지 예약이 마감됐다. 사교육을 희망하는 학부모 A씨는 예약이 열리면 5분만에 다 차버리는 경우가 많아 수강신청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수강료 역시 일반 과외비에 버금갈 정도로 비싼 편이다. 2~6명의 학생이 한 그룹을 이뤄 2시간가량 교육을 받는 비용만 40만~45만원에 달한다. 특히 강남 3구에선 1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성교육 과외가 성행하고 있다. 이젠 성교육도 사교육의 시대가 열렸다. 속이 텅 비어있는 공교육을 대신해 비용을 주고서라도 자녀들에게 제대로된 성교육을 제공하겠다는 학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공교육의 시대착오적인 성개념은 최근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책을 포함한 다수의 작품들이 청소년 유해도서로 선정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다. 아시아 여성 최초이자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도서 <채식주의자>가 검열됐다. 보수 학부모 단체의 외압에 의해 해당 도서는 경기도 내 도서관과 학교에서 찾아볼수 없게 됐다.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 이창래의 '가족', 정재승의 '인간은 외모에 집착한다', 아사히 신문 출판사의 'Why+ 인체', 사카이 다츠오의 '내 몸 안의 숨겨진 비밀, 해부학'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에서 2528권의 성평등·성교육·페미니즘 관련 도서가 폐기됐다. '남다른 성교육 연구소' 고상균 소장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전했다. "청소년의 성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기피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제대로 알려주어야 한다"며 "양육의 개인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청소년을 단순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주체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author: '이나라', imgUrl: 'https://imgur.com/YyDYwBy.png', iconimgUrl: 'https://imgur.com/L0R8w61.png', date: ['2024-11-13'], 대분야: '사회', 소분야: '젠더', 감정: '비판', 유형: '젠더감수성만렙', },

{ id: 14, title: '애플 신형 아이맥',

content: ['애플이 1년 만에 신형 데스크톱 '아이맥'을 공개했다. 이 제품은 최신 M4 칩을 탑재하고,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적용했다.', '아이맥은 M1 모델 대비 CPU와 GPU 성능이 각각 최대 1.7배, 2.1배 더 빠르며, 뉴럴 엔진 성능은 3배 향상되었다.', '신형 아이맥은 7가지 색상으로 제공되며, 가격은 199만원부터 시작한다. 한국 출시일은 미정이다.'], author: '뉴시스', date: ['2024-10-29'],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0/29/130315232.1.jpg', iconimgUrl: 'https://imgur.com/mHrfRUa.png', 대분야: '경제', 소분야: '창업산업', 감정: '균형', 유형: '프론티어', },

{ id: 15, title: 'TSMC 美대선 눈치',

content: [""아이폰에 들어갈 칩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찍히게 됐다."" , " 2022년 12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 1공장 장비 반입식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이같이 말했다. 쿡 CEO를 비롯해 조 바이든 대통령, 장중머우(張忠謀·모리스 창) TSMC 창업자 등이 샴페인 잔을 부딪친 이날 행사는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동맹'의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하지만 2020년 1공장 투자를 처음 밝힌 TSMC는 아직 미국에서 1개의 반도체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TSMC는 2020년 총 650억 달러(약 86조9000억 원)를 투입해 피닉스에 반도체 공장 3기를 건설 중이다. 1공장의 생산 시기는 2024년에서 2025년 상반기로 미룬다고 최근 밝혔다. 또 2공장은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됐다. 3일 대만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3공장도 2029년 말에나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 생산 지연의 주된 이유로 미국과 대만의 문화적 충돌과 미숙련 노동자 문제가 꼽힌다. 일각에서는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TSMC가 양당 후보의 반도체 정책 향방을 지켜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는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가져갔다. 대만은 미국에 방위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TSMC를 간접적으로 저격한 바 있다.", "연원호 국립외교원 교수는 "TSMC는 (미국보다는) 대만에서 반도체 생산을 하려는 의지가 강한 편이었다"며 "(미국의 차기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author: '전남혁 기자', date: ['2024-09-06'],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1/10/130396062.3.jpg', iconimgUrl: 'https://imgur.com/6ldnzh.png', 대분야: '경제', 소분야: '창업산업', 감정: '균형', 유형: '프론티어', },

{ id: 16, title: '카프리션 빨대',

content: ["농심이 음료 브랜드 '카프리션'에 제공되는 빨대 소재가 다음 달부터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바뀐다고 29일 밝혔다.", "유통채널별로 실제 판매되는 시점은 상이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종이빨대를 적용한 이후 약 20개월만이다.", "농심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된 종이빨대 품질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빨대로 다시 바뀌달라는 소비자 요청이 이어져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심은 지난해 2월 카프리션 빨대 소재를 플라스틱에서 종이로 전환했지만 이후 종이빨대가 포장재를 잘 뚫지 못해 불편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폭증, 2차례 품질 개선에 나섰다.", "농심은 지난해 7월 종이빨대 절단면 각도를 조정했고 11월에는 표면 처리로 빨대 강도를 보완하는 조치를 취했다.", "소비자들은 종이빨대 특유의 냄새와 감촉, 시간이 지날수록 눅눅해지는 현상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했다.", "소비자 불만은 카프리션 판매 감소로 이어졌다.", "매년 900만 박스를 유지하던 농심 카프리션 판매량은 지난해 13%, 올해 3분기까지는 추가로 16% 감소했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변경은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농심은 플라스틱 저감화 등 환경보호를 위한 변화와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thor: '뉴시스', date: ['2024-10-29'],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0/29/130315171.1.jpg', iconimgUrl:

'https://imgur.com/4asXLHX.png', 대분야: '경제', 소분야: '창업산업', 감정: '균형', 유형: '프론티어', },
{ id: 17, title: '3분기 카드액 ↑',

content: ["신용·체크카드 승인금액에 비쳐볼 때, 국내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 조짐이 보인다는 진단이 나왔다.", "2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카드 승인금액과 승인건수는 각각 307조원, 74억2000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5.0% 3.5% 증가했다.", "협회는 소비심리가 전년동기 대비 다소 위축됐으나, 경제 전반에 물가 안정세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올 1분기 3.0%에서 2분기 2.7%, 3분기 2.1%로 하락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카드승인 실적 증가세가 유지됐다.", "특히 해외여행 정상화와 관광 활성화 추세로 항공사 이용객과 여행 관련 업종 수요 증가 흐름이 유지됐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올 3분기 외국으로 나간 여행객은 2285만8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0.5% 늘었다. 7~8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297만2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0.1% 급증했다.", "다만 온라인 거래액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완화됐는데, 티메프 사태와 이에 따른 상품권 구매 축소 등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7~8월 39조48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5% 느는 데 그쳤다. 이 중 e쿠폰서비스는 944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0.2% 급감했다.", "신용카드 승인금액과 승인건수는 각각 239조7000억원, 45억1000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7%, 1.5% 늘었다. 체크카드 승인금액과 승인건수는 각각 64조5000억원, 28억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5.0%, 5.3% 증가했다.", "전체카드 평균승인금액은 4만1356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 1.2% 증가했다.",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로 나눠보면, 개인카드의 승인금액과 승인건수는 각각 250조8000억원, 70억2000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3.7%, 3.6% 늘었다. 법인카드의 승인금액과 승인건수는 각각 56조4000억원, 4억1000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1.2%, 0.2% 증가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 중 소비자의 소비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8개 업종에서는 전년동기 대비 교육서비스업(7.9%), 운수업(3.4%) 등이 증가했다. 운수업의 증가는 해외여행 증가와 항공, 철도 등 교통수단 이용이 증가한 영향이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은 0.6% 감소했다. 각종 스포츠경기장 실적은 개선됐으나, 테마파크 등의 실적이 감소한 결과로 분석된다."], author: '뉴시스', date: ['2024-10-29'],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0/29/130314472.1.jpg', iconimgUrl: 'https://imgur.com/kZaDYsN.png', 대분야: '경제', 소분야: '경제일반', 감정: '비판', 유형: '경제 분석가', },

{ id: 18, title: '다크웹',

content: ["서울고법 형사3부는 29일 다크웹에서 약 2억 6000만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박 모 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277회 단독으로, 37회 다른 사람과 공모해 총 2.5kg의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은 뒤 이를 환전하여 출처를 숨긴 점도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박 씨의 전과가 없고, 해악이 더 큰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고려됐다.", "검찰은 2년 동안 8억 6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1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uthor: '뉴스1', date: ['2024-10-29'],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0/29/130317414.1.jpg', iconimgUrl: 'https://imgur.com/0GMWbyK.png', 대분야: '사회', 소분야: '사건사고', 감정: '비판', 유형: '현장 추적자', }, { id: 19, title: '신데렐라 주사', content: ["서울의 성형외과 의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지인이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태닝 숍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담당 의사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 A 씨와 60대 의사 B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지인 30대 C 씨가 운영하는 부천 태닝 숍 등지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그의 권유로 코 수술을 받은 C 씨 등 여성 2명의 실밥을 C 씨가 운영하는 태닝 숍 등지에서 뽑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C 씨에게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피부 미용 목적의 '신데렐라 주사'도 투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관리·감독 없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A 씨의 불법 의료 행위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B 씨의 범행은 C 씨가 지난 4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C 씨는 A 씨의 불법 의료 행위로 부작용 등을 겪자,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인 B 씨가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이를 묵인했다"며 "A.B 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최근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C 씨는 또 A 씨가 수술 중 자기 몸을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고소장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핸드폰 등에서 확인된 불법 촬영물은 없다고 보고, 해당 사안은 종결한 상태다."], author: '뉴스1', date: ['2024-10-29'], iconimgUrl: 'https://imgur.com/vk0lr90.png',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0/29/130316465.1.jpg', 대분야: '사회', 소분야: '사건사고', 감정: '비판', 유형: '현장 추적자', },

{ id: 20, title: '마약동아리',

content: ["집단 마약을 투약한 대학생 연합동아리 '깡부' 회장 측이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을 문제삼으며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회장 염 모 씨 측 변호인은 4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마약류 취급·매매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에서만 있었던 행동으로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특수상해·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잘못된 사실을 반성한다"며 "추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로 고소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염 씨 측 변호인은 현행법상 검찰의 마약 수사 개시 관련 규정을 토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을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 개시 가능 부분을 벗어났다"며 "마약 등 일정 범죄 경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2021년 1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시행되면서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돼 500만 원 미만 마약류 밀수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법무부는 2022년 9월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당 부분 마약 수사권을 복원했다. 그 결과 검찰은 마약류 가액 제한 없이 밀수와 유통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마약 소지, 보관, 투약 등 범죄는 여전히 검찰 수사 범위 밖에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직접 수사 관련성 부분과 법규 위임 관련해 반박 의견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염 씨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이 포함된 수백명 규모 대학 연합동아리를 설립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마약을 집단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author: '뉴스1', date: ['2024-11-04'],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1/04/130355942.1.jpg', iconimgUrl: 'https://imgur.com/Dpe2Ege.png', 대분야: '사회', 소분야: '사건사고', 감정: '비판', 유형: '판례 수집가', },

{ id: 21, title: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content: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업무추진을 견제하는 책무를 핵심으로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의원인 피고인 김용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시 산하 공사의 실세 기획본부장인 유동규가 성남시 대형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인 남옥 등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사업공모참여, 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수수 등을 통해 상호 밀접하게 유착되어가는 과정에서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1심 판결문의 양형이유 일부 (‘양형판단의 전제’ 전문(全文)은 기사 끝부분에)", "지난달 30일 대장동 관련 사건 중 처음으로 1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결과는 유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의 판단이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6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또 6억7000만 원 추정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 ‘뿌리깊은 부패의 고리’ 인정한 법원", "이 사건은 엄밀히 따지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메인 사건은 아닙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배임·뇌물 혐의 재판과,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의 대장동 민간업자 5인방의 배임 혐의 등 실질적 본류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선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당시 경기 성남시 인허가권자들의 유착관계를 상당부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고, 공사가 민간업자들 이권 개입의 통로가 됐다"며 "(대장동)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성남시 의사결정의 최고 책임자는 시장이던 이 대표였으니, 대장동 사업의 당시 최종 결정권자가 이 대표라는 검찰 주장을 법원이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민간업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의 뿌리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김용이 받은 돈, ‘이재명 대선 캠프’ 行 의심”, “판결문에는 또 김 전 부원장이 민간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이재명 대선 캠프’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표현들도 곳곳에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들을 보면 범행 시기는 대선 경선 조직 구성과 준비 등을 위해 정치자금에 필요했던 시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선 1년 전인 2021년 5~6월경 남옥 변호사로부터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총 6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는데, 민주당 경선 준비 자금이 필요했던 시점과 겹쳤다는 것입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전국 단위 조직이 완성된 상태라 조직관리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경선 준비 비용은 자원봉사와 각출(釀出·여러 사람이 나눠 냄)로 해결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선 준비 규모에 비춰 볼 때 (각출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비용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 측이 예비경선 후보 등록일 이전부터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 2곳을 운영한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각출만으로는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세 등을 충당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부원장이 금품을 받았을 당시 캠프는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이처럼 경선자금 유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이른바 ‘428억 약정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유 전 직무대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주기로 약속했고, 김 전 부원장이 요구한 돈은 이 중 일부”라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올 3월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혐의는 일단 제외했습니다.”, “● 법원 “유동규 진술, 실체 밝힐 의도가 우선했던 것””, “법원은 또 대장동 관련 재판의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유 전 직무대리의 증언과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도 상당부분 인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직무대리가 지난해 9월 무렵부터 진술을 번복한 점을 근거로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추가적 수사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검사의 협박이나 회유 등이 행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을 일괄하여 배척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관련 진술과 관련해선 “유동규로서는 자신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관여하였다는 이야기를 굳이 제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본인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될 여지가 있었다”며 “오히려 사안의 실체를 밝히려는 의도가 우선했던 제보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올해 2월 광상도 전 의원 아들의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도 “다소 과장이나 거짓이 있을지언정 허언으로 치부할 순 없어 보인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 유 전

직무대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정치적 동지이자 의형제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 유동규 교통사고로 재판 일정 밀려", "김 전 부원장은 선고 당일 법원에 출석하며 "(소감 발표는) 선고 나고 하겠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법정구속된 그의 소감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법조계에선 김 전 부원장이 옥중에서 심경변화를 일으켜 진술을 번복한다면 향후 대장동 재판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불법 정치자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선고한 것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도 "1주일 만에 20억 원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 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 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믿기 어렵다.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며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 전 직무대리가 이달 5일 오후 8시 반경 경기 의왕시의 한 고속화도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조만간 재판에 출석이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11일로 예정됐던 대장동 민간업자 5인방의 배임 혐의 본류 재판은 이달 18일과 22일로 미뤄졌습니다. 그가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배임·뇌물 혐의 재판 역시 기일이 이달 19일로 늦춰졌습니다.", "※혹시 재판부의 정치적 성향을 의심하는 독자들을 위해 재판부의 과거 판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 재판장을 맡은 조병구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시절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깨졌고,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다음은 김 전 부원장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밝힌 '양형판단의 전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1995년경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의사결정 및 행정 전반의 권한과 책임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고, 그 재량의 폭도 넓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문성과 리더십 외에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더불어 그 재량행사에 있어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의 의사결정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지방의회에서도 예산심의권, 출석요구권, 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 등을 통해 적절한 사전, 사후견제가 행해져야 한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업무추진을 견제하는 책무를 핵심으로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의원인 피고인 김용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시 산하 공사의 실세 기획본부장인 유동규가 성남시 대형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인 남욱 등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사업공모참여, 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수수 등을 통해 상호 밀접하게 유착되어가는 과정에서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 유동규 및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의 관여로 인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공공개발에 있어, 이를 반대하는 지방의회 다수당의 이익이 있음에도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되었고, 이후 공사가 위 민간업자들의 이권개입의 통로가 되었으며,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 김용과 유동규 등은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시장선거일 직전 상대 후보측에 관한 부정적 보도가 이루어지는 데에 이용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활용하였고, 민간업자들은 이들과의 끈끈한 관계로 얻은 개발사업의 기회를 통해 취득한 이익과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려는 행태까지 보였다. 이러한 민간업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의 뿌리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이다.",], author: '김자현 기자',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3/12/16/122652653.1.jpg', iconimgUrl: 'https://imgur.com/DmKGAV4.png', date: ['2023-12-26'], 대분야: '사회', 소분야: '법원 검찰', 감정: '비판', 유형: '판례 수집가', }

{ id: 22, title: '10대를 위한 AI',

content: ["어크로스페이스는 29일 청소년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과연계형 생성형 AI 서비스 '지피틴즈(GPTeens)'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초·중·고등학생에게 최적화된 AI 디지털 교육 플랫폼으로, 미래 세대의 질문 능력과 문해력 향상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지피틴즈는 AI 디지털 수업, 정보 특화 수업, 교과 연계형 학습, 방과 후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학생의 수준에 맞춘 개인화된 응답과 교과 데이터 학습을 통한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생성형 AI와 차별화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특히 초등학교 교과와 직접 연계된 질문 추천 기능으로 학습 이해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한다.", "또한 청소년 보호 알고리즘과 유해 콘텐츠 차단 기능을 적용하여 부모님과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청소년이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며, 교육계의 수요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적 일상에 관해서도 얘기했다. 한 작가는 "술을 못 마신다. 최근에는 건강을 생각해 커피를 비롯한 모든 카페인도 끊었다. 좋아했던 여행도 이제는 거의 하지 않는다.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고 말했다.", "AI 디지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에 어크로스페이스는 흐름에 발맞춰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유원 어크로스페이스 대표는 "지피틴즈는 학생들이 생성형 AI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돕고, 학습 과정에서 적극적인 질문과 탐구를 통해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교과와 연계하고, 학생들이 맞춤형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AI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thor: '김상준 기자',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0/29/130316377.2.jpg', iconimgUrl: 'https://imgur.com/DiAWuXe.png', date: ['2024-10-29'], 대분야: '사회', 소분야: '교육입시', 감정:

'낙관', 유형: '백년 통찰가', },

{ id: 23, title: '유보통합포털 운영',

content: ["내년도 어린이집 입소나 유치원 입학 신청은 일원화된 '유보통합포털'에서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입학 지원 온라인 사이트를 '유보통합포털'로 통합하고 다음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은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유치원 입학 신청은 '처음학교로' 사이트에서 따로 해야 했다.", "사이트가 통합된 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유보통합 정책에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했지만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업무가 교육부로 통합됐다.", "유보통합포털 개통에 따라 가입 및 로그인을 한 번만 하면 필요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 여부, 방과 후 프로그램 종류, 특수학급 운영 여부 등을 손쉽게 찾아보고 비교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도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야간연장형, 시간제 등 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고 놀이터, 특수교사, 보건교사, 통학차량 등도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학부모가 유보통합포털 관련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학부모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위해 올 9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152곳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운영 중이다. 유보통합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author: '여근호 기자',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0/28/130309449.1.jpg", iconimgUrl: "https://imgur.com/YjlrE4X.png", date: ['2024-10-28'], 대분야: '사회', 소분야: '교육입시', 감정: '낙관', 유형: '백년 통찰가', },

{ id: 24, title: '선생님의 노동권',

content: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교수 등 교원도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를 민간 기업 대비 절반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교원 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노조 활동만 강화하는 '편향 입법'이라고 비판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민간기업 대비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타임오프 한도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교원노조 활동만 강화하고 교원단체는 말살, 무력화하는 편향 입법이자 차별 행정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단체도 차별 없이 타임오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즉각 교원지위법 개정에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타임오프는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며 "교원단체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입법권자가 얼마든지 법률로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원 노동자들은 반쪽짜리 타임오프에 합의한 적 없다"며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를 온전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원의 타임오프는 민간 대비 반토막"이라며 "타임오프를 반토막 낸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의 결정은 명백히 반노동·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사노위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민간기업의 49% 수준에서 교원의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author: '뉴스1',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0/28/130308935.1.jpg", iconimgUrl: 'https://imgur.com/s4VI3sw.png', date: ['2024-10-28'], 대분야: '사회', 소분야: '노동', 감정: '논쟁', 유형: '일터 지킴이', },

{ id: 25, title: '필리핀 가사도우미',

content: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대해 "여러 걱정이 많기는 하지만, 사용자 만족도가 높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차관은 "정부로서 왜 이 사업을 했느냐를 보면, 가사육아도우미가 2014년 22만명이었다가 지난해 말 10만5000명으로 줄었다"며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보니 그 해결책으로 시범사업을 했고, '돌봄(Care giver)' 자격증이 있는 필리핀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동거리 등 걱정이 많지만 저희가 확인해보니 사용자 만족도가 높았다"며 "저희 고용부로서는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현장에 정착되고 관리가 잘 돼 일단 이 사업 자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2명 무단이탈을 두고 걱정하는데, 저희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이를 잘못 케어해 문제가 되지 않을지 혹은 성희롱·성폭행이 일어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관리가 되고 있다"고 했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현재 시범사업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다"며 "사업이 끝날 때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을 가지고 말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이 끝난 뒤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저출생 사회의 육아를 두고 같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문수 장관이 밝힌 것처럼 (차등적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차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6개월의 시범사업 후에도 당분간 대한민국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했기 때문에, 3년에서 최대 4년10개월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김 차관은 "다른 E-9처럼 한 3년 정도는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author: '뉴시스',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0/25/130294342.1.jpg', iconimgUrl: 'https://imgur.com/mLOoNlh.png', date: ['2024-10-25'], 대분야: '사회', 소분야: '젠더', 감정: '균형', 유형: '일터 지킴이', },

{ id: 26, title: '위고비 부작용',

content: ["미국에서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췌장염으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다. 세마글루타이드 사용 후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사례도 잇달아 발생하면서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SCI급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이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췌장염은 세마글루타이드 부작용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체블리 다거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 파밍턴 캠퍼스 내과 연구진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2형 당뇨병, 관상동맥 질환, 비만(BMI 31.7)을 앓고 있는 해당 74세 남성은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중증 췌장염 진단을

받았다.", "이 남성은 4년간 세마글루타이드를 사용했으며, 입원 4주 전에 약물의 용량을 기존 0.25mg에서 0.5mg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 췌장염 진단을 받은 뒤에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분산성 쇼크, 신부전,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ARDS), 심정지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 "연구팀은 "이 환자는 약물을 0.5mg으로 늘린 뒤 심한 구토 메스꺼움, 변비 등의 부작용을 겪고 다시 용량을 0.25mg 줄였으나, 높은 용량의 세마글루타이드를 견디지 못해 급성 췌장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거나 보충제, 약초를 사용한 적이 없는 만큼 약물에 의한 췌장염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사례 보고에 따르면, 세마글루타이드는 노출 직후에 급성 췌장염이 부작용으로 나타났는데, 세마글루타이드 사용 몇 년 후 또는 용량을 늘린 후 급성 췌장염이 발생한 사례는 처음 보고된 것"이라며 "세마글루타이드의 부작용으로 후기 췌장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논문에는 해당 사례 외에도 다른 사례도 포함돼 세마글루타이드 사용과 급성 췌장염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최소한의 증거가 보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의 한 36세 여성은 갑작스러운 상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급성 췌장염 진단을 받았다. 이 여성은 5주 전부터 체중 감량을 위해 세마글루타이드를 주사했는데, 의사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지인 중 한 명으로부터 이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세마글루타이드 주사를 중단하고 리파아제 수치가 정상화되면서 증상이 크게 호전됐으나, 논문에서는 이 여성도 세마글루타이드가 급성 췌장염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미국 유명 방송인 오프라윈프리가 사용해 유명해진 세마글루타이드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약물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및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다.", "국내에도 최근 공급되면서 과열양상을 빚고 있어 의사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오남용에 따른 우려와 부작용 등을 안내하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도 세마글루타이드 사용 요건에 맞지 않는 환자가 미용을 목적으로 이를 사용했다 췌장염에 걸린 사실을 알리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uthor: '뉴시스',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0/29/130317061.1.jpg', iconimgUrl: 'https://i.imgur.com/liRq3QB.png', date: ['2024-10-29'], 대분야: '사회', 소분야: '보건복지', 감정: '비판', 유형: '삶의 질 설계자', },

{ id: 27, title: '캐나다의 의료해법', content: ["이달 20일 서울 서초구에선 캐나다에서 의사가 되려는 의대생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등을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현장에서 만난 4년 차 레지던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 주며 "캐나다 병원에서 수련·취업을 하려는 이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인데, 올 2월 의정갈등 전 5명이었던 참가자가 최근 72명까지 늘었다"고 했다. 서울 대형병원 1년 차 레지던트는 "의정갈등은 언젠가 끝날 텐데 한국에서도 돈 많이 벌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의대 증원도 문제지만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 역시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 기자들은 8개월 넘게 이어지는 의정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해 올해 9, 10월 미국,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등 이른바 '의료선진국' 4곳을 둘러봤다. 한국과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양질의 의사를 늘리고 필수·지방 의료를 강화하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법은 전혀

달랐다.", "네덜란드에서 방문한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ACMMP)는 '오래 계획하고, 자주 추계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었다. 이 기구 관계자는 "의사 수 추계의 핵심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수요와 공급이 조화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라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의사들이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했다. 정부가 발주한 보고서 등을 근거로 '2000명 증원'을 덜컥 발표한 한국 정부와 대조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의사단체는 여전히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필수·지방의료를 강화하는 방법도 차이가 컸다. 미국에서 만난 한 의사는 신경외과, 흉부외과 의사가 평균 연봉 1, 2위를 다투는 걸 거론하며 "미국은 난이도와 전문성에 맞는 보상을 통해 유능한 인재가 중증 진료에 유입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낮다는 이유로 필수과가 대형병원에서 찬밥 신세인 한국과는 전혀 달랐다.", "보상에는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도 포함된다. 미국 오하이오주 대형병원에서 만난 전임의는 "미국에선 충분히 휴식해야 제대로 진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 50시간 근무가 일반적이다. 해외 우수 인재들이 모여드는 이유"라고 했다. 한국 필수의료 전문의가 주 80시간 이상 일하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일본의 경우 지방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의사제를 도입했다. 현지에서 만난 일본 의사는 "의대 증원만으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 그래서 점진적 증원과 함께 지방 의사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했다.", "또 현지 의료 관계자들은 "의사는 원하는 만큼 빨리 늘리기 어렵다"고 했다. 네덜란드 의료 연구소 관계자와 일본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대생을 늘리는 건 좋은데 가르칠 사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한국 정부가 관련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취지였다.", "캐나다에선 의대생이 지도교수와 둘이서 하루 4시간씩 2주 동안 진료하는 모습을 봤다. 의대생 6, 7명이 교수 뒤만 따라다니다 끝나는 한국의 임상 실습과는 차이가 컸다. 전공의 과정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한국의 전공의 과정을 모두 경험한 의사는 "미국은 수련 프로그램에 따라 일대일로 매칭돼 수술을 하며 체계적으로 역량을 키운다. 그런데 한국은 환자를 보면서 틈틈이 책을 보거나 교수님을 붙잡고 배워야 했다"고 했다. 한국 대형병원이 전공의를 '저임금 근로자'로 여기고 장시간 근로를 시키는 것과 달리 '교육생'으로 여기고 적절한 교육과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의대생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의료선진국의 특징이었다. 네덜란드는 의대 졸업 후 1, 2년 동안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으며 자신에게 맞는 임상 분야를 찾을 수 있게 한다. 미국과 캐나다에는 의사와 과학자 과정이 충실하게 마련돼 있었고, 일본에는 의대 재학 중 낙도 의료를 의무적으로 1주일 이상 경험하게 하는 대학도 있었다.", "최근 일부 의사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협의체가 가동될 경우 최우선 과제는 당연히 의대 증원 합의일 것이다. 하지만 신뢰할 만한 의사 수 추계 시스템 구축, 필수·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 등 한국 의료를 미래로 이끌 논의 역시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이번에 막대한 희생을 치른 국민에 대한 예의이면서, 정부와 선배 의사에게 실망해 해외로 떠날 준비를 하는 의대생·전공의를 멈출 방법이기도 하다."], author: '박성민 기자',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0/25/130291361.1.jpg', iconimgUrl: 'https://imgur.com/veAO97i.png', date: ['2024-10-25'], 대분야: '사회', 소분야: '보건복지', 감정:

'비판', 유형: '삶의 질 설계자', },

{ id: 28, title: '비트코인 가격 상승', content: ["비트코인이 연일 랠리를 펼치며 9700만원대도 뚫었다. 9500만원대를 돌파한지 하루 만이다.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매수 심리를 자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9일 오전 8시40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1.33% 오른 9756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는 2.79% 상승한 9769만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24시간 전보다 2.80% 뛼 6만9867달러를 나타냈다.", "이더리움도 연일 상승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1.45% 오른 357만원을, 업비트에서는 2.37% 뛼 357만원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에서는 2.38% 상승한 2566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이다.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시가총액(시총) 상위 10위권 알트코인 중에서는 도지코인이 독주했다. 이날 오전 9시 코인마켓캡 기준 도지코인은 13.51% 급등했다.", "이는 도지파파(도지코인 아버지)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효과로 풀이된다. 머스크는 28일(현지시간) X에 트럼프 선거 유세에 참석했을 당시 자신의 사진과 도지코인 이미지를 함께 올렸다. 도지코인은 해당 게시물이 게재된 후 급등하기 시작했다.", "김치프리미엄은 0%대로 전환됐다. 최근 이어졌던 역김치프리미엄에서 돌아섰다. 김치프리미엄은 비트코인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뜻한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비교 플랫폼 크라이프라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9분 기준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은 0.81%다.", "시장은 이날 대장주 비트코인 강세와 함께 들썩였다. 특히 비트코인이 1억원 재돌파까지 2%(231만원)만 남겨둔 상태라 관심이 더욱 쏠린다.", "1억원은 비트코인 투자자에게 꿈으로 불리는 가격대다. 그 자체로 상징성이 있는 만큼 1억원에 재돌파한다면 K-포모족의 투심을 부추길 수 있다. 실제로 앞서 지난 3월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한 이후 국내 매수세가 급증한 바 있다.", "여기에 700만원만 더 오르면 신고점을 갱신한다. 지난 3월 기록한 원화 기준 전고점(1억450만원)과는 약 681만원 차이이다.", "제프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SC)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더블록을 통해 "미국 대선 당일 비트코인이 7만3000 달러를 돌파,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며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옵션 손익분기점이 약 4%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 며칠 동안 총 10% 정도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비트코인 옵션 투자자들이 오는 12월 27일 만기 행사가 8만달러 이상 콜옵션에 몰려있다"며 "해당 수준까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 업체 얼터너티브(Alternative)에서 집계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이날 72점을 기록하며 '탐욕(Greed)' 수준을 나타냈다. 전날(72·탐욕)과 동일한 수치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를,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각각 의미한다.",], author: '뉴시스', date: [2024-10-29],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0/29/130315303.1.jpg', iconimgUrl: 'https://imgur.com/QjIRUgt.png', 대분야: '경제', 소분야: '금융/제테크', 감정: '균형', 유형: '한국의 위렌버핏', },

{ id: 29, title: '성 상납 발언', content: ["경찰이 '이화여대생 미군 성 상납' 발언 등으로 고소·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접수됐던 고소·고발 사건 20건을 이달 중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4·10 총선 과정에서 과거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 상납시켰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2022년 8월 한 유튜브에서 "중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이화여대 측은 '사실이 아닌 발언을 통해 김활란 총장과 이화여대 구성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활란 전 총장의 유족 또한 "한평생 여성교육에 헌신해 온 고인과 이화여대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발언이 특정 인물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학술적인 연구 목적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author: '김혜린 기자',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0/29/125486341.4.jpg', iconimgUrl: 'https://imgur.com/eAkwFEg.png', date: ['2024-10-29'], 대분야: '사회', 소분야: '젠더', 감정: '비판', 유형: '젠더 감수성 만렙', },

{ id: 30, title: '3분기 경제성장률', content: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치며 정부 예상치를 밑돈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수출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성장률 자체는 4분기(10~12월) 숫자가 어떻게 나오든 잠재성장률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였다.", "최 부총리는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이견을 내는 등 대출 금리를 둘러싼 부처 간 메시지 혼선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정부가 한 달여 만에 입장을 바꿔 환율 안정을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끌어다 쓰기로 한 건 국회에 대한 '허위 보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장관은 9월 외평기금 추가 활용 검토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외평기금을 세수 결손에 활용하는 것은 대외 신인도에 부담이 아니고 국채 발행만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 파탄을 초래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규명하고 이 사태의 주 원인인 부자 감세를 철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재정파탄 청문회'를 즉각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세수 부족 대책을 국회가 요청할 때는 제출하지 않다가 국감장을 통해 먼저 발표한 것은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발표하고 국회에 이 자료를 내놓은 것은 그야말로 꼼수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꼼수를 부리거나 정부의 확정된 것을 통보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며 “재정 대응 방안 보고에 앞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author: '이호 기자', imgUrl: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0/2024/10/29/0003594890_001_20241029030642412.jpg?type=w860', iconimgUrl: 'https://imgur.com/v6OOmXl.png', date: ['2024-10-29'], 대분야: '경제', 소분야: '경제일반', 감정: '균형', 유형: '경제 분석가', },

{ id: 31, title: '의대생 휴학 승인', content: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조건 없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두 의사단체와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 건의를 수용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선언하면서 대화체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29일 의대를 둔 40개교 대학 총장들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조건 없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 2월 의료 공백 이후 '휴학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가 이달 6일 '조건부 제한적 휴학'을 허용기로 한 데 이어 29일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까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현재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의대생 복귀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며 "2025학년도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정부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 결정은 일부 의사단체와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의학회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는 22일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전제로 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방침을 밝혔다. 의대를 둔 국립대 10곳 총장들의 협의체인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도 28일 건의문을 내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 휴학 승인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여 학생 보호 및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교육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의대협회는 대한의학회와의 공동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휴학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여야의정이 함께 참여해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며 "의대협회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책임지는 학생 교육의 당사자로서 학생과 교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것이며 대학의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여전히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와 의대생 참여 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반쪽 출범'이 될 가능성도 있다."], author: '정봉오 기자',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0/29/130318355.1.jpg',

iconimgUrl: 'https://imgur.com/veAO97i.png', date: ['2024-11-01'], 대분야: '사회', 소분야: '보건복지',
감정: '비판', 유형: '백년 통찰가', },

{ id: 32, title: '가정폭력 피해자의 살인', content: ["가정폭력에 오랜 기간 노출돼 온 아들이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0분경 30대 남성 A 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자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욕하는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어머니와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노출돼 있었고, 사건 당일 아버지가 다시 폭행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정은 2017년과 2021년에도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uthor: '조유경 기자',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1/01/130274486.3.jpg', iconimgUrl: 'https://imgur.com/5Cp2nQ.png', date: ['2024-10-29'], 대분야: '사회', 소분야: '사회일반', 감정: '균형', 유형: '시사 마스터', },

{ id: 33, title: '한강 수필 공짜', content: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54)이 월간 교양잡지 '샘터'에 기고했던 수필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됐다.", "출판사 샘터사는 한강 작가가 '샘터'에 기고한 과거 연재 글을 샘터 누리집에 무료로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무료 공개되는 글은 1988년 11월호에 수록된 '청동 하회탈'부터 2000년 8월호에 실린 '내가 아는 한 사미스님'까지 총 18편이다.", "샘터사 관계자는 뉴스1에 "이번 무료 공개의 목적은 한강 작가의 글을 보다 많은 분께 소개하기 위해서"라며 "기한 없이 앞으로 계속 (누리집에) 걸어둘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샘터사에 따르면 한강 작가는 1993년 대학 졸업 후 약 2년 정도 월간 '샘터'의 편집부 기자로 활동했다. 등단 이후에도 해당 잡지에 여러 글을 기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수필도 한강 작가가 샘터사 퇴사 이후 기고한 글이다.", "총 18편의 연재 글은 누구나 샘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thor: '뉴스1',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0/25/130292353.1.jpg', iconimgUrl: 'https://imgur.com/IFaylFi.png', date: '2024-10-25', 대분야: '문화', 소분야: '없음', 감정: '낙관', 유형: '삶의 향유자', }, { id: 34, title: '경복궁 산책', content: ["국가유산청 경복궁관리소는 오는 11월 7일부터 29일까지 특별 관람 프로그램 '조선의 빛과 그림자: 건청궁과 향원정에서의 특별한 산책'을 시범 운영한다.", "고종과 명성황후가 머물렀던 건청궁은 조선후기 중요 정치공간이자 우리나라에서 전등이 최초로 밝혀진 곳이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던 장소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조선후기 왕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됐던 향원정은 연못 위에 세워져 건축미를 자랑하는 건물이다.", "평소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건청궁 내 일부 공간인 장안당, 곤녕합과 향원정의 내부 관람이 제한됐다.", "경복궁관리소는 "이번 특별 관람에서는 국가유산 해설사의 전문 해설과 함께 평소 쉽게 볼 수 없는 건청궁과 향원정의 내부 전각을 관람하며 조선시대 왕실의 일상과 휴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 관람 참가신청은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에서 회당 20명(1인당 2매)까지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관람 희망일 하루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 "만 7세 이상 아동부터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1만원(경복궁 입장료 포함)이다.", "경복궁관리소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특별 관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정규 프로그램으로의 확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thor: '김상준 기자', imgUrl: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4/10/29/130315119.1.jpg', iconimgUrl: 'https://imgur.com/ax4tCVv.png', date: ['2024-10-29'], 대분야: '문화', 소분야: '없음', 감정: '균형', 유형: '삶의 향유자', },]